

중국과 그리스 신화의 전쟁신 형상의 특징과 그 문화적 배경 연구*

— 치우(蚩尤)와 아레스(Ares)를 중심으로

선정규**

<목 차>

- I. 서언
- II. 전쟁신의 외형과 신격형성 과정의 차이
 1. 신인이형(神人異形)과 신인동형(神人同形)
 2. 인간의 신격화와 신의 인격화
 - 1) 인간의 신격화 - 치우
 - 2) 신의 인간화 - 아레스
- III. 전쟁신 형상의 심미적 특징
 1. 비극성 - 치우
 2. 호전성 - 아레스
- IV. 전쟁신 신격 형성의 문화적 배경
 1. 성패사관과 비극영웅에 대한 숭배
 2. 개인주의와 무력의 숭배
- V. 결어

I. 서언

인류는 원시사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왔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특성화연구비에 지원에 의해서 제작되었음.

**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중국학부 교수

관점은 시대와 입장에 따라서 모두 다르다. 그러나 어떤 형태라도 분쟁과 갈등이 존재하는 곳엔 언제나 전쟁이 있었고, 또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민족이나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은 백성의 생사가 달려있고 국가의 존망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일이다.”¹⁾

신화가 민족문화의 복합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민족이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에 관한 신화 역시 민족 신화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전쟁신화는 전쟁신의 역할과 행위에 관한 이야기이고, 전쟁신은 전쟁을 관장하는 영웅인물로, 전쟁의 승리를 보우하는 신령이나 무신(武神)이라는 점에서 전쟁신의 형상은 민족의 신화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한 민족의 신화에 내포된 문화적 특성은 전쟁신의 형상을 통해서 투영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쟁의 본질은 물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궁극적인 힘에 대한 관점은 시대의 변화와 민족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민족에 따라서 전쟁신의 형상에 커다란 차이가 있고, 심지어 동일한 민족의 신화에 형상이 서로 다른 전쟁신이 다수 출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예를 들면 중국신화에는 치우를 비롯하여 형천(刑天), 현녀(玄女), 관우(關羽) 등의 전쟁신이 출현하고, 그리스 신화에도 아레스(Ares)와 아테나(Athena)가 동시에 전쟁신으로 출현한다.

신화는 민족문화의 원형으로, 신화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민족문화의 기본정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스와 중국의 문화는 동서양을 대표하는 고대문화이며,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중국문화의 영향 아래서 살아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다른 문화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 문화의 생명력을 강화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고대 중국과 고대 그리스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목적에서 서술되었다. 이를 위해 중국신화의 대표적인 전쟁신인

1) 兵者國之大事，死生之地 存亡之道，不可不察也。(《孫子·計篇》)

치우와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전쟁신인 아레스를 중심으로 이들 전쟁신이 가지고 있는 각종 특성, 즉 전쟁신의 외형과 성격형성의 차이 및 전쟁신 형상의 심미적 특징, 그리고 그러한 특징들을 형성한 문화적 배경을 상호 비교 고찰하였다.

II. 전쟁신의 외형과 성격형성 과정의 차이

1. 신인이형(神人異形)과 신인동형(神人同形)

중국신화의 전쟁신 치우와 그리스 신화의 전쟁신 아레스는 그 외모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치우의 모습을 살펴보면, “여덟 개의 팔, 여덟 개의 다리, 두 개로 나누어진 머리”²⁾를 하였거나, “형제가 81명(혹은 72명)에 짐승의 몸으로 사람의 말을 하고, 구리 머리에 쇠로 된 이마를 하였으며, 모래와 돌을 먹는다.”³⁾고 하였다. 또 “사람의 몸에 소의 발굽을 하고, 네 개의 눈에 여섯 개의 손을 가졌으며”⁴⁾, “양쪽의 귀밑머리가 칼과 창같이 곧두섰고, 머리에 뿔이 있다”⁵⁾든가, “거북의 발에 뱀의 머리를 하였다”⁶⁾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치우가 인간의 모습이 아닌 반인반수(半人半獸) 내지 인수합체(人獸合體)의 괴이한 외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아레스는 올림포스의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똑같은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 “아레스는 투구를 쓰고 청동 갑옷을 입었으며, 방패와 창, 검으로 무장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아레스는

2) 八肱八趾疏首。(《歸藏·啓筮》)

3) 有蚩尤兄弟八十一人，並獸身人語，銅頭鐵額，食沙石子。(《太平御覽》卷七九引《龍魚河圖》) 有蚩尤氏兄弟七十二人，銅頭鐵額，食鐵石。(《述異記》卷上)

4) 人身牛蹄，四目六手。(《述異記》卷上)

5) 耳鬢如劍戟，頭有角。(《述異記》卷上)

6) 龜足蛇首。(《述異記》卷上)

보통 아무것도 타지 않은 채 싸웠지만, 가끔 네 마리의 군마가 끄는 전차를 타기도 했다.”⁷⁾ 그는 보통사람 보다 월등하게 컸으며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질렀다. 또한 그는 거구에 걸맞는 “방패도 일거에 쳐부수는”⁸⁾ 괴력의 소유자로, 《일리아스》에서는 “손에 무시무시한 큰 창을 들고 때로는 헥토르 앞으로, 때로는 그의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아갔다”⁹⁾고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치우와 아레스가 외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성격형성의 배경과 ‘신’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른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신화의 신들은 치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들이 하나같이 인수합체의 괴이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원시 토렘숭배의 흔적임과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발전된 조상숭배의 영향 때문이다. 말하자면 중국신화의 신들은 기본적으로 씨족이나 부족의 수장이 사후에 그 구성원들에 의해서 조상신으로 숭배되어 신격이 형성되었다. 이는 중국의 원시 고대사회가 중국의 선민(先民)들은 신비성(mystique) 과 독점성(Monopoly)을 특징으로 하는 원시사유의 지배 아래서 신무(神巫)가 절대적 존경을 받는 강렬한 신본문화의 사회로 부락의 수령이나 제왕은 이미 정치적인 최고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최고 사제였기 때문이다. 중국 선민(先民) 들의 의식 속의 신은 각종 자연력을 통수(統帥)할 뿐만 아니라 인간만사를 주재하였다.¹⁰⁾ 이들 신들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지고무상의 존재로 인식되었고, 그에 따라 인간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유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원시선민들은 동물들을 인간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진 경외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고, 또 이들 강한 동물들이 지니고 있는 두려운 힘을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때문에 이들 동물들에 대한 두려움과 숭배의 심리를 자신들의 조상신에 투영시킴으로써 신의 외형이 하나같이 반인반수로 나타나게 되었다.¹¹⁾

7) 피에르 그리말 지음 / 최애리 번역, 《그리스 로마 신화사전》(열린책들, 2009) p.245.

8) 헤시오도스 저 / 김원익 옮김, 《신통기》(민음사, 2003) p.88.

9) 호메로스 저 / 이상훈 역, 《호메로스》(동서문화사, 1987) p.83.

10) 賀菊玲, <中西神話中神的形象塑造及民族文化精神的差異>《社會科學家：SOCIAL SCIENTIST》2011年11月(第11期, 總第175期) p.27.

11) 김선자, 《중국변형신화의 세계》(범우사, 2002) p.74.

이에 비해서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아레스는 물론 주신 제우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고대 그리스에는 토렘 숭배의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고 물체 자체에는 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자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동물은 인간이 나락에 빠져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자연물의 형상은 인간이 곤란을 겪어서 만들어진 변형으로 간주되었다. 때문에 신화 속에서 만들어 낸 신의 형상은 사람의 모습이였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형식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신의 모습에 집중적으로 표현하여서 신으로 하여금 인간의 외형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갖추도록 했을 뿐 아니라 또한 인간의 감정, 의지, 욕망을 갖추도록 하였다. 그들은 인간의 모든 것을 신에게 부여하였고, 신을 인격화시켰다.¹²⁾

다음으론 고대 그리스에 강력한 제사계급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인, 비극작가, 철학자, 예술가 등이 그리스 신화에 풍부한 내용을 부여하여 번성시켰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신화의 창조자 내지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지식계층들은 신화의 전승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였고, 이에 따라 신의 외형이나 형상이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¹³⁾ 전쟁신 아레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12신이 모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적 특징을 가진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중국신화의 전쟁신 치우가 인수합일(人獸合一)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리스 신화의 전쟁신 아레스는 신인합일(神人合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12) 선정규, 《여와의 오색돌 - 중국 문화의 신화적 원형》(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p.187.

13) 賀菊玲, 앞의 글, p.27.

2. 인간의 신격화와 신의 인격화

1) 인간의 신격화 - 치우

전쟁신 치우에 대한 숭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치우가 처음부터 전쟁신의 신격을 가지고 중국신화에 등장한 것은 아니다. 치우신화를 기록한 선진 시대의 중국 문헌에 따르면 치우는 단지 황제(黃帝)의 속신(屬臣)이었으나,¹⁴⁾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하여 풍백(風伯)과 우사(雨師) 등의 동료 신들과 함께 황제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탁록대전(涿鹿大戰)에서 패배하여 죽임을 당하는 실패한 반역자로 전락되었다.¹⁵⁾ 그러나 《상서·여형(尙書·呂刑)》은 치우를 구려(九黎) 묘족(苗族)의 수장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¹⁶⁾ 특히《용어하도(龍魚河圖)》나 《술이기(述異記)》 등에서 치우의 형제가 81명이라든가, 아니면 72명이라고 하는 것이나, 《노사(路史)》에서 치우를 염제의 후예로 말하는 것 등으로 보아 치우 자체가 하나의 부족의 명칭인 것처럼 이해된다.¹⁷⁾

이처럼 모순된 기록으로 인해서 치우가 과연 역사상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신화 인물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다만 웬커(袁珂)의 말처럼 “황제와 치우의 전쟁신화는 기본적으로 원시사회의 부족과 부족 사이의 전쟁을 반영하고 있다. 신화의 각도에서 보자면 황제와 치우는 모두 천신(天神)이나, 전설의 각도에서 보자면 그들은 두 부족의 수령이다. 이는 신화와 역사가 서로 뒤섞여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었던 고대의 어쩔 수 없었던 상황”¹⁸⁾이

14) 者黃帝合鬼神於泰山之上，駕象車而六蛟龍，畢方並轄，蚩尤居前，風伯進掃，雨師灑道，虎狼在前，鬼神在後，騰蛇伏地，鳳皇覆上，大合鬼神，作為清角。(《韓非子·十課》) 蚩尤明乎天道，黃帝使爲當時。(《管子·五行》)

15) 蚩尤作兵伐黃帝，黃帝乃令應龍攻之冀州之野。應龍蓄水。蚩尤請風伯雨師，縱大風雨。黃帝乃下天女曰魃，雨止，遂殺蚩尤。(《山海經·大荒北經》)

16) 王曰：<若古有訓，蚩尤惟始作亂，延及于平民，罔不寇賊，鴟義，奸宄，奪攘，矯虔。苗民弗用靈，制以刑，惟作五虐之刑曰法。殺戮無辜，爰始淫爲劓、刵、椽、黥。越茲麗刑並制，罔差有辭。>(《尙書·呂刑》)

17) 袁珂, 《古神話選釋》(台北長安出版社, 1982) 앞의 책, p.141.

18) 袁珂, 앞의 책, p.139.

기도 하다.

다만 《상서·여형》의 저작시기가 대체로 서주(西周)시기이고, 이에 비해 치우에 관한 신화가 주로 기록된 《산해경》을 비롯하여 《태평어람》, 《신이경》, 《술이기》 등의 소설류 문헌의 저작시기가 모두 《상서·여형》보다 더 늦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역사인물로서의 치우가 신화인물로서의 치우보다 더 일찍 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⁹⁾

또한 “신화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역사를 반영하거나 또는 신화 속에 부분적으로 역사적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신화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이다. 신화는 한 민족의 구전되는 신성한 역사이기도 하고, 집단생활의 중대한 사건들이 특수한 형식으로 그 속에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민족 공동체의 집단기억이 신화 속에 보존되어 있다. 또한 한 민족의 시조이거나 혹은 역사에서 특수한 공헌을 한 인물이 신화 속의 신이나 영웅 인물로 전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²⁰⁾는 점에서 치우 신화는 역사 인물의 신격화에 의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부족의 수령으로 추정되는 치우는 비록 전쟁에 패배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생전에 보인 강력한 전투력과 용맹성으로 인하여 전쟁신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사실 부족의 수장이나 제왕이 사후에 신격화되어 숭배되었던 것은 비단 치우의 경우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다. 이는 중국신화에 등장한 신령 창조의 일반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황제를 비롯하여 소호(少昊), 제준(帝俊), 제곡(帝嚳), 후직(后稷), 그리고 요순(堯舜)에 이르기까지 특정 부족의 수령이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사후에 신으로 승격된 데서 잘 알 수 있다.

2) 신의 인격화 - 아레스

그리스 신화의 전쟁신인 아레스(Ares)는 올림포스 12신중의 하나로, 일반

19) 선정규, <치우 형상 변화의 사회문화적 원인 고찰>《中國學論叢》第44輯, 2014.5, p.112.

20) 선정규, 앞의 책, pp.326-327.

적으로 주신 제우스와 그의 아내 헤라의 소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Theogony》에 따르면 헤라가 신들, 그리고 인간들의 왕과 사랑에 빠져 아레스 등을 낳았다고 하였고,²¹⁾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Publius Ovidius naso) 역시 그의 《행사력: Fasti》에서 헤라가 올레누스(Olenus) 초원에서 한 송이 꽃을 만지고서 아레스를 잉태하여 낳았다고 전하고 있다.²²⁾

이처럼 아레스의 출생에 관해서 이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가 올림포스 12신 중의 하나라는 것은 바로 애초부터 아레스가 인간이 아닌 신으로 태어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레스는 자신의 부모인 제우스와 헤라에게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할 정도로 신성이 결여된 신이다. 이는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에서 아레스의 지원을 받는 헥토르에 의해서 그리스 연합군이 속속 쓰러져가자, 아레스의 어머니 헤라는 오히려 아테나에게 함께 아레스의 기세를 저지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주신 제우스에게 아레스를 “호되게 두들겨 주고 싸움에서 쫓아 버리겠다”고 요청하자, 제우스가 아테나로 하여금 아레스와 싸우도록 흔쾌히 허락하는 것이나,²³⁾ 헤라가 아테나에게 아레스와 그의 정부인 아프로디테를 혼내 주라고 부추기는 데서, 그리고 부상당한 채 징징거리며 올림포스로 돌아온 아레스에게 제우스가 치뜬 눈으로 쏘아보며 하는 말에서 잘 나타난다.

뒤냐, 간에 붙고 쓸개에 붙고 하는 녀석이, 내 옆에 뻘뻘스럽게 앉아서 우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올림포스에 사는 여러 신들 가운데 네가 제일 내 마음에 안 드는 녀석이다. 왜냐하면 너는 언제나 싸움이라든가 투쟁이라든가 전쟁 같은 것만 좋아할 뿐 아니라, 네 어머니의 기세가 또한 누를 수도 막을 수도 없을 정도이니 말이다. 그러니 필경 너도 너의 어머니가 부추겨서 이런 꼬락서니가 되도록 한 게지.²⁴⁾

21) 헤시오도스 저, 김원익 옮김, 《신통기》(민음사, 2003) p.87.

22) 付飛亮·元紹丞, <中西戰神: 關羽和阿瑞斯> 《贛南師範學院學報》2012年02期, pp.60-61.

23) 호메로스 저 / 이상훈 옮김, 앞의 책, pp.85-86.

24) 호메로스 저 / 이상훈 옮김, 앞의 책, p.89.

이처럼 자신의 부모에게서 조차 인정을 받지 못한 아레스는 그 불만을 파괴력으로 폭발시켜 싸움꾼으로 전락하였고,²⁵⁾ 이로 인해서 아레스는 그리스 신화 중에서 유일하게 파괴와 살육을 대표하는 신으로, 지혜의 적이자 인류의 재앙이 되었다.²⁶⁾ 이는 마치 부모에게 버림받은 인간의 자식이 비행청소년으로 성장하여 부모의 골칫거리이자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는 아레스가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의 아내인 아프로디테와 불륜을 저지르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헤파이스토스가 설치한 철망에 걸려서 못 신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망신을 당하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중재로 풀려나는 모습을 가인의 노래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²⁷⁾ 그런가 하면 아프로디테가 아도니스에게 반하자 아레스는 멧돼지로 변하여 그를 들이받아 죽이기도 한다.

또한 전쟁신이지만 아레스는 전투력도 변변치 않다. 그래서 전쟁신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대부분의 전쟁에서 패배한다. 거인 기간테스와의 전쟁에서는 세 번이나 창에 찔리기도 하고, 트로이아 전쟁에서는 아테나의 지원을 받은 디오메데스에게 복부를 창으로 찔려 피를 흘리며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소리를 지르며 도망을 가기도 하며, 또 아테나 여신에게 검은 돌로 목덜미를 맞아 나자빠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인간 영웅인 헤라클레스에게 넓적다리에 창을 맞고 도망을 가기도 한다. 심지어 거인 오토스와 에피알테스 형제에게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 청동 항아리 안에 13개월 동안이나 갇혔다가 헤르메스에 의해 가까스로 구출되기도 한다.

이상의 서술에서 우리는 아레스 역시 다른 그리스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무결점의 존재로서의 신이 아니라, 인간과 다를 것이 없는 결점 투성이의 신임을 알 수 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증오, 분노, 원망, 불평, 짜증, 저주, 질투, 심통, 복수심 등 격하고 악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

25) 윤일권·김원익,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서양문화》(문예출판사, 2004) p.148.

26) 付飛亮·元紹丞, 앞의 글, p.61.

27) 호메로스 저 / 이상훈 옮김, 앞의 책, pp.448-450.

정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폭발시켜버린다.”²⁸⁾ 이처럼 아레스는 결점을 부정적으로 발전시켜 파괴와 유혈의 신이 되었다. 이는 어떤 명분의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그 본질은 폭력과 야만이고 전쟁의 속성은 바로 인간 내면의 한 속성과 일치되는 것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아레스는 인간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본능을 상징”²⁹⁾하는 인격화된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은 치우가 인간이면서 신으로 승화되어 숭배되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전쟁신 형상의 심미적 특징

1. 비극성 - 치우

비극미는 미학의 미적 범주 중 하나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詩學)》에서 비극을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한 감정의 카타르시스(Katharsis)”³⁰⁾라고 정의한 데서 기원하였다. 카타르시스에 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대체로 ‘감정의 정화’를 의미한다는 윤리적 견해와 ‘감정의 배설’을 의미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서로 대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³¹⁾

그러나 비극미의 핵심이나 관건은 고귀하고 존엄한 인간정신이 진정으로 전사되는 데 있다. 요컨대 비극이 그리는 주인공의 비참한 운명에 의해서 관중의 마음에 ‘연민’과 ‘공포’의 감정이 유발되는 과정에서 이들 인간적 정념이

28) 윤일권·김원익, 앞의 책, p.175.

29) 동상

30) 아리스토텔레스 저 / 千丙熙 譯,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삼성출판사, 1983) p.336.

31) 아리스토텔레스 저 / 千丙熙 譯, 앞의 책, p.339.

어떠한 형태든지 순화된다고 하는 일종의 정신적 승화작용(昇華作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그것은 왕왕 비장과 승고와 서로 연계되어서 깊고도 거대한 공감과 심령의 진동을 느끼도록 하며, 아울러 깊은 예술적 감염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계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심미적 쾌감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비극미란 단지 생명의 고난과 훼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사망에 직면하여서도 감히 항쟁할 수 있는 인간의 태도와 정신을 말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재앙에 직면한 비극적 인물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하는 반항과 불굴의 태도, 즉 항쟁정신이야말로 비극미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중경(焦仲卿)과 유란지(劉蘭芝)의 봉건적 인습에 항거한 죽음, 로미오와 줄리엣이 가족들의 세습적 관념에 대항하여 죽음으로 불변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 안티고네(Antigone)가 국왕의 명령에 고개 숙이지 아니하고 오라비를 매장하였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 오이디푸스가 운명에 대항하여 자신의 두 눈을 찌르고 유랑의 길을 떠나는 것, 맥베스(Macbeth)와 오텔로(Otello)의 내면의 모순과 충돌, 그리고 몸부림 등은 모두 비극미에 전형에 속한다.³²⁾

황제는 염제와의 투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신국의 최고 통치자에 등극한다.³³⁾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신국의 안녕은 치우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린다. 치우의 선진 기술과 용맹성으로 인하여 황제는 아홉 번 싸워서 아홉 번 모두 승리하지 못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으나, 결국은 현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승리하게 되었고,³⁴⁾ 치우는 황제에게 붙잡혀 목이 잘려 처형되고 만다.³⁵⁾

32) 李文斌, <悲劇和悲劇美> 《忻州師範學院學報》 2006年01期, p.12.

33) 故黃帝者, 炎帝之兄也, 炎帝無道, 黃帝伐之涿鹿之野, 血流漂杵, 誅炎帝而兼其地, 天下乃治。(《新書·益壤》)

34) 黃帝與蚩尤九戰九不勝, 黃帝歸於泰山, 三日三夜, 霧冥。有一婦人, 人首鳥形, 黃帝稽首再拜, 伏不敢起。婦人曰吳玄女也, 子欲何問, 黃帝曰, 小子欲萬戰萬勝。遂得戰法焉。(《太平御覽》卷一五引《黃帝玄女戰法》), 黃帝攻蚩尤, 三年城不下。(《太平御覽》卷三百二十八引《玄女兵法》), 帝征蚩尤七十一戰不克。(《路史·黃帝紀》)

35) 應龍已殺蚩尤, 又殺夸父。(《山海經·大荒北經》), 黃帝殺蚩尤於黎山之丘。(《雲笈七籤》引《軒轅本紀》), 傳言黃帝與蚩尤戰於涿鹿之野, 黃帝殺之, 身體異處, 故別葬之(孫馮翼輯《皇

치우가 왜 이처럼 황제에 대항하였는지 그 원인은 알 수가 없다. 황제와 치우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황제의 신성 통치에 치우가 대항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황제로 대표되는 기존의 질서체계에 대항하는, 치우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대항세력이 결국은 비참하게 패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치우의 죽음은 결국 자유를 위한 반항의 결과이다. 비록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귀결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지만, 거대한 기존세력에 대항하는 항쟁정신이 바로 치우가 후세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신으로 숭배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치우 신화는 비극이고, 또한 치우의 형상 역시 비극형상이며, 그의 죽음은 바로 신화의 비극미를 구현하고 있다”³⁶⁾고 할 수 있다.

2. 아레스 - 호전성

전쟁신 아레스의 성격적 특성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호전성이다. 아레스의 호전성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그의 아버지인 주신 제우스가, “너는 언제나 싸움이라든가 투쟁이라든가 전쟁 같은 것만 좋아한다”라고 아레스를 꾸짖는 말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일리아스》에서 아레스는 “인류의 파멸과 살인의 피에 젖어 성체를 파괴하는 자”, “인간을 다 해치지 못해 피투성이가 되어 성벽을 부수는”, “재앙의 근원”, “모질고 잔인한”, “머리가 모자라는”, “기세 사나운”, “거칠게 설치고는 있어도 두말할 것 없는 불량배인 데다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피투성이 살인마”, “인간에게 화를 끼치는” 등으로 묘사되고 있으며,³⁷⁾ 그리스의 어떤 폴리스도 그를 수호신으로 받들지 않았다.

覽·冥墓記》)

36) 李向明, <時代的剪影, 理想的昇華 - 試論上古神話的悲劇美>《內蒙古民族學院學報(哲社版)》1999年第3期, 總第 79期, p.19.

37) 호메로스 저 / 이상훈 옮김, 위의 책, pp.71-89.

아레스의 호전적 성격은 먼저 그의 출신지와 동반자들의 성격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아레스는 “미개하고 날씨가 혹독하며 말과 호전적인 민족들이 많이 사는 트라케에 산다고 알려져 있고, 야만의 땅이며 저주의 땅으로 평판이 나 있는 그리스 북부 지방 트라키아를 근거지로 삼고 있다.”³⁸⁾ 또한 아레스는 아프로디테와의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형제로, 각각 공포와 폭력의 의인화인 포보스(Phobos)와 데이모스(Deimos),³⁹⁾ 그리고 그의 누이로 추종자인 불화의 여신 에리스(Eris)⁴⁰⁾, 그리고 그의 딸로서 폭력적이고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전쟁의 여신 에니오(Enyo)⁴¹⁾를 언제나 시종처럼 전쟁터로 거느리고 다녔다. 이들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채, 방패와 창을 들고 전차를 몰고 다니며 닳치는 대로 싸움질과 행패를 일삼았다.

아레스의 호전성은 그의 자식들 역시 하나같이 흉포하기 짝이 없다는 데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신의 딸에게 구혼을 하는 자들을 전차 경주를 구실로 모조리 죽여서 그들의 목을 문간에 매달아 놓는 피사의 왕 오이노마오스(Oenomaus),⁴²⁾ 델포이로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습격하여 죽여서 아버지 아레스 신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 난폭하고 살육을 즐기는 키크노스(Cycnus),⁴³⁾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불을 지른 플레기아스(Phlegyas),⁴⁴⁾ 자신의 나라를 찾아오는 이방인들을 죽여서 암말들에게 먹이로 주는 트라케 왕 디오메데스(Diomedes)⁴⁵⁾ 등이 모두 아레스의 아들이다. 그리고 전쟁을 즐기는 호전적인 여전사들인 아마조네스의 여왕 펜테실레이아(Penthesileia) 역시 아레스의 딸이다.⁴⁶⁾

38) 윤일권·김원익 지음, 《그리스 로마신화와 서양문화》(문예출판사, 2004) pp.173-174.

39) 피에르 그리말 지음 / 최애리 번역, 앞의 책, p.593.

40) 피에르 그리말 지음 / 최애리 번역, 앞의 책, p.342.

41) 피에르 그리말 지음 / 최애리 번역, 앞의 책, p.337.

42) 피에르 그리말 지음 / 최애리 번역, 앞의 책, p.384.

43) 피에르 그리말 지음 / 최애리 번역, 앞의 책, p.490.

44) 피에르 그리말 지음 / 최애리 번역, 앞의 책, p.625.

45) 피에르 그리말 지음 / 최애리 번역, 앞의 책, p.95.

46) 피에르 그리말 지음 / 최애리 번역, 앞의 책, p.260.

또한 트로이 전쟁에서 신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전투에 개입하였는데, 아레스는 자신의 두 아들인 아스칼라포스(Askalaphos)와 이알메노스(Ialmenos)가 그리스 군에 몸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트로이 편을 든다. 정의와 명분, 특별히 정해진 진영이 없이 잔인한 전투를 즐기며 많은 살육을 하고자 한 것이다. 때문에 아레스는 아버지 제우스 신으로부터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녀석”이라는 핀잔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아레스는 전투력도 보잘 것 없고 자신이 지지하는 대의명분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전장의 북소리만 울리면 춤을 추고, 피비린내를 맡으면 기뻐 날뛰다.

전쟁신이라고 하면 마땅히 승리를 위해 전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이 제격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출전하는 병사들이 군법의 제조자에게 기세가 배가되어 오르도록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전쟁신이다.”⁴⁷⁾ 중국의 전쟁신 치우는 바로 이런 직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레스의 전쟁은 맹목적이며 그저 싸우고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판에서 어느 쪽을 편들어 주는 일도 없이 닥치는 대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여 피바다를 이루고 시체의 산을 만들어 놓고 기뻐한다.”⁴⁸⁾ “죽이는 것밖에 모르는 투사와 같다. 창칼을 들고서 싸움 그 자체를 즐긴다.”⁴⁹⁾ 또한 스티팔로스 늑에 살며 전쟁터의 주검을 그 양식으로 삼는 새를 길러서 보내는 것도 아레스이다. 아레스는 저승 땅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넉넉하게 공급하는 저승신 하데스의 하수인이고, 이 새들은 아레스의 하수인이다.⁵⁰⁾ 그래서 헤시오도스는 아레스를 “폭력과 유혈이라고 하는 전쟁의 부정적 측면을 관장하고 또 그것을 대표하는 신”⁵¹⁾이라고 말하고, 제우스 신이 창조한 인간의 세 번째 종족으로 거칠고 사나우며 끔찍하게 생긴 청동의 종족이 저지르는 악행을 바로 아레스의 잔인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⁵²⁾

47) 造軍法者，禱氣勢之增培也。其神蓋蚩尤，或曰黃帝。(《周禮·春官·宗伯》鄭玄注)

48) http://pksmystory.com.ne.kr/04_myth/ares.htm

49) 윤일권·김원익, 앞의 책, pp.174-175.

50) 이윤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4》(웅진지식하우스, 2007) pp.204-205.

51) 헤시오도스 저, 김원익 옮김, 《신통기》(민음사, 2003) p.88.

52) 헤시오도스 저, 김원익 옮김, 위의 책, p.127.

아레스가 전쟁신으로 정위(定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그가 주신 제우스의 적자로 올림포스 12신의 대열에 들어 있으면서, 오로지 살육과 유혈을 즐기는 포악한 기질, 바로 호전성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리스 신화의 지혜의 여신이자 또 다른 전쟁신인 아테나가 오로지 전략적 사고나 전술 등을 담당하며 방어에 치중하는 신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되며, 또한 선진기술과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서 절대 권력에 대항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치우의 비극성과는 크게 대조되는 점이다.

IV. 전쟁신 신격 형성의 문화적 배경

1. 성패사관과 비극영웅의 숭배 - 치우

치우의 형상을 대표하는 특징은 그를 난적(亂賊) 또는 악신(惡神)으로 규정하여 악마화(demonize)⁵³⁾ 되었으나 또한 역설적으로 왕실과 민간을 막론하여 전쟁신으로 숭배되었다는 이율배반성에 있다. 이처럼 단순히 부족 전쟁에 패배한 치우가 악마화 되어 사악과 혼란의 대명사로 매도되고, 또 목이 잘린 전쟁의 괴수 치우가 다시 전쟁신으로 숭배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하여 존재할 수 있는가? 바로 중국의 전통문화에 내재된 성패사관(成敗史官)에 의한 패자에 대한 주변화와 실패한 비극 영웅에 대한 숭배의식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패사관은 한 마디로 생존을 척도로 영웅을 판단하는 역사의식이다. 시대의 조류와 추세를 잘 이해하여 출세와 영달을 한 사람은 영웅호걸로 인정받고, 또 승리하면 왕이 되고 패배하면 역적이 된다는 생존 논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53) 악마화란 사물의 본질이나 인물의 진상과는 상관없이 주로 과장과 과대, 그리고 단장취의(斷章取義)의 수단을 사용하여 사물이나 인물의 악랄하고 두려운 모습만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것이 바로 성패사관이다. 이는 중국문화의 지울 수 없는 특징이자 민족심리의 고질적 병폐라고 할 수 있다.⁵⁴⁾

치우와 황제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원시 부족 사이에서 벌어졌던 투쟁과 갈등을 반영하는 것일 따름이다. 씨족이나 부족집단이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투쟁형식 중의 하나가 전쟁이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황제와 치우와의 전쟁이었다.⁵⁵⁾ 때문에 신화적 사실만을 기록한 《산해경》의 기록을 보면 치우와 황제는 완전히 평등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를 따름이지 어떤 포퓰의 평가는 없다. 전쟁의 결과에서도 객관적인 결과만을 전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는 봉건사회의 기록들이 전하는 치우와 황제와의 전쟁과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구분이 없다.

그러나 정통 사서를 비롯한 후대의 문헌들은 하나같이 무도(無道)하고 불인 부자(不仁不慈)한 치우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징벌당한 것으로 말한다.⁵⁶⁾ 그리고 습관적으로 황제는 정의와 질서의 화신으로, 이에 대항한 치우는 사악과 혼란의 대명사로 언급된다. 이에 따라 황제는 봉건통치자들의 조종으로 숭배되었고, 황제에 대항하다가 실패하였던 치우는 역도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고,⁵⁷⁾ 심지어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인물로까지 매도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공자가 “치우는 보통사람들 가운데서도 매우 탐심이 많은 사람으로, 이익을 만나면 도의를 저버리고, 어버이마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생명마저

54) 薛宗正, <失敗英雄崇拜與成敗史觀-論我國傳統文化心態的二律背反>《新疆社會經濟》2000年第3期, p.11.

55) 선정규, 앞의 글, p.109.

56) 蚩尤作亂, 不用帝命。於是黃帝乃徵師諸侯, 與蚩尤戰於涿鹿之野, 遂禽殺蚩尤。(《史記·五帝本紀》), (蚩尤)威振天下, 誅殺無道, 不仁不慈。(《太平御覽》卷七九引《龍魚河圖》)

57) 대표적으로 《逸周書·常麥》에서는 “치우가 염제를 몰아내고 탁록의 들에서 전쟁을 벌였다.”(蚩尤乃逐帝, 爭于涿鹿之河。)라고 하였고, 《상서여형》에서는 “치우가 처음 난을 일으키니, 백성들에게까지 췌치고 미치어, 남을 치고 살인을 하고, 경솔하고 사악하고 안팎으로 난을 일으키어, 강탈하고 훔치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하였다. 《사기·오제본기》 역시 “제후들이 모두 현원에게 복종했으나, 다만 치우만이 가장 포악하였으므로 현원도 그를 정복할 수 없었다. …… 치우가 또다시 난을 일으켜 황제의 명을 듣지 않자, 이에 황제는 제후들로부터 군대를 징집하여 탁록의 들에서 싸워서 결국은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잃게 되었고, 탐욕에 눈이 어두워 만족할 줄을 모르는 사람”⁵⁸⁾이라고 그를 규정하는 데서 쉽게 이해된다.

전쟁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눌 수밖에 없다. 승리자의 보호신은 열렬한 찬양을 받아 과장되게 분식되지만, 패배자의 보호신은 폄하되고 추악한 형상만이 강조되는 것은 어쩌면 역사의 상례이다. 역사의 기록은 승리자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패한 민족의 신령은 흉악하고 무도한 반역의 신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승리자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이기에 패배자는 계속하여 주변화되어 악마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치우의 전패에 대한 《산해경》의 서술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도덕적 평가가 전혀 없고, 인물의 평가에 있어서도 중립적이라고 해도 전쟁의 결국(結局) 자체는 치우의 패배로 귀결되어 있다. 패배했다는 자체가 바로 생존과 승리를 지상으로 여기는 후대 기록자들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치우를 부정적으로 형상화시키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⁹⁾ 《사기》를 비롯한 사서들이 황제를 대표로 하는 오제를 정통으로 삼고, 이러한 정통 세력에 대항하였던 치우를 비롯한 곤(鯀), 형천(刑天), 공공(共工) 등을 모두 부정적인 인물로 주변화시켜 버린 것은 바로 이들이 모두 실패자였기 때문이다.

치우가 황제에 대항하다 목이 잘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는 것 역시 분명한 신화적 사실이다. 그러나 황제 자신이 이미 죽은 치우의 초상을 전시함으로써 천하의 안녕을 도모⁶⁰⁾하였을 뿐 아니라, 상주(商周)시대의 청동기에 주로 새겨진 도철문(饕餮紋)⁶¹⁾에서는 초세간적인 권위의 신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형상화될 정도였다.⁶²⁾ 또한 전국시대에는 병기를 관장하는 별을 ‘치우’라고

58) 蚩尤，庶人之貪也。不顧闕親，以喪闕身。蚩尤愆欲而無厭者也。(《大戴禮·用兵》)

59) 顏建真，〈論中國古代神話中的失敗者被妖魔化的表現及其原因—以蚩尤，共工，刑天，鯀為例〉《中國海洋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0年第3期，p.109.

60) 蚩尤沒後，天下復搖亂不寧，黃帝遂畫蚩尤形象以威天下。天下咸謂蚩尤不死，八方萬邦皆為殄殄。(《太平御覽》卷七九引《龍魚河圖》)

61) 청동기의 도철문이 과연 무엇을 형상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론이 없다. 다만 宋 羅泌의 《路史·蚩尤傳》注에 “蚩尤天符之神，狀類不常，三代彝器，多者蚩尤之像，為貪虐者之戒。其像率為獸形，傳以肉翅.”라고 한 바에 따르면 도철문이 바로 치우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름 하였고,⁶³⁾ 또 하늘의 혜성을 ‘치우지기(蚩尤之旗)’라고 하여 이 ‘치우지기’가 나타나면 전쟁에 유리하다고 믿었다.⁶⁴⁾

이후 치우에 대한 숭배는 역대의 왕실과 민간을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진시황은 봉선제의 팔신 중의 세 번째 지위를 가진 전쟁을 관장하는 병주(兵主)로 치우에게 제사를 지냈다.⁶⁵⁾ 한고조 유방 역시 최초로 병사를 일으킬 때에 치우에게 제사를 지내 승리를 기원하였을 뿐 아니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도 역시 치우에게 제사를 지냈다.⁶⁶⁾ 이후 역대 왕실에서 치우를 전쟁신으로 받들어 제사를 지내는 마제(禡祭)⁶⁷⁾의 풍속이 송대에까지 지속되었다.⁶⁸⁾ 민간에서는 치우희(蚩尤戲)라는 연희가 연행되었고, 치우의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풍속 역시 널리 성행하였다.⁶⁹⁾

패배자 치우가 이처럼 전쟁신으로 등극되어 숭배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물론 치우는 비록 실패하였지만 병기를 제조하는 선진 기술문명을 보유하고⁷⁰⁾ 황제도 구천현녀의 도움을 받아서 가까스로 제압할 정도로 용

62) 李澤厚, 《美的歷程》(三聯書店, 2010), p.38.

63) 司兵之星名蚩尤。(《史記·高祖本紀》)

64) 蚩尤之旗,類彗而後曲,象旗,見則王者征伐四方。(《史記·天官書》)

65) 秦始皇遂東游海上,行禮祠名山大川及八神,求仙人羨門之屬。八神將自古而有之,或曰太公以來作之。……其禮絕莫知起時。八神:一曰天主,祠天齊,天齊淵水,居臨菑南郊山下者。二曰地主,祠泰山梁父。……三曰兵主,祠蚩尤,蚩尤在東平陸臨鄉,齊之西境也。四曰陰主,祠三山。五曰陽主,祠之罘,六曰月主,祠之萊山。……七曰日主,祠成山……八曰四時主,祠琅邪。琅邪在齊東方。蓋歲之所始,皆各用一牢具祠,而巫祝所損益,珪幣雜異焉。(《史記·封禪書》)

66) 祠黃帝,祭蚩尤於沛庭。(《史記·高祖本紀》) 令祝官立蚩尤之祠於長安。長安置祠祝官、女巫。(《史記·高祖本紀》)

67) 《詩經·大雅·皇矣》의 류제(類祭)와 마제(禡祭), 그리고 《周禮·春官·宗伯》의 맥제(貉祭)는 정현(鄭玄)의 주석에 따르면 바로 전쟁신 치우에게 바치는 제사였다. 선정규, 앞의 글, pp.118-119.

68) 漢宗蚩尤,亦作靈旗,是爲兵主,用以行師,既類既禡,指于有罪。(柳宗元 <祭蠶文>) 用少牢一祭蚩尤,禡牙。(《宋史禮志》)

69) 今冀州有樂名蚩尤戲,其民兩兩三三,頭戴牛角而相抵。漢造角抵戲,蓋其遺制也。太原村落間祭蚩尤神,不用牛頭。今冀州有蚩尤川,即涿鹿之夜。漢武時,太原有蚩尤神畫見,龜足蛇首,大疫,其俗遂爲立祠。(《述異記》卷上) 蚩尤塚,在東平郡壽張縣闕鄉城中,高七丈,民常十月祀之,有赤氣出如匹絳帛,民名爲蚩尤旗。(《黃覽·塚名記》輯本)

70) 葛盧之山,發而出水,金從之,送尤受而制之,以爲劍鎧矛戟,是歲相兼者諸侯九,雍狐之山發而出水,金從之,蚩尤受而制之,以爲雍狐之戟芮戈,是歲相兼者諸侯十二。(《管子·地數》) 造治者,蚩尤也。(《太平御覽》卷八三引《尸子》) 蚩尤以金作兵器。(《世本·作篇》)

맹하였기 때문에 전쟁신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은 구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치우가 전쟁신으로 등장하여 오래 동안 지속적으로 숭배되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중국의 전통문화 속에 실패한 비극 영웅을 숭배하는 역사전통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굴원은 천제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식양을 훔쳐 치수에 대항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한 곤(鯀)의 강직함을 애탄하였고,⁷¹⁾ 도연명은 염제의 딸로 동해 바다에 빠져 죽은 다음 나뭇가지를 물어다 바다를 메우는 정위(精衛)와 황제에게 대항하다 목이 잘리자 유두를 두 눈으로 배꼽을 입으로 삼아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는 형천(刑天)의 강인한 항쟁정신을 찬양하였다.⁷²⁾ 이처럼 신화인물에 대한 찬양은 말할 것도 없고 자객 형가(荊軻), 전횡(田橫)과 오백장사(五百壯士), 항우, 이광, 소무(蘇武),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 제갈량과 주유(周瑜) 등등 중국 고대와 근세의 역사에 등장하였던 수많은 실패한 비극 영웅들은 오히려 성공하여 영달을 누렸던 인물들보다 더욱 민간으로부터 영웅으로 숭배되었다. 또 이러한 민간의 정서에 부합한 많은 문학작품이 양산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학은 문자를 도구로 하여 객관적 사실을 형상화거나 작가의 영혼세계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또한 작가는 민족의 전통문화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민족의 문화적 전통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작가의 풍격에는 필연적으로 민족의 문화적 전통의 유전자가 스며들어 민족성을 표출한다. 실패한 비극 영웅에 대한 숭배를 기저로 하는 문학작품이 끊임없이 출현하였던 것은 그러한 정서가 이미 문화적 전통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패배자 치우가 전쟁신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국인들의 이러한 문화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전쟁신 치우가 한편으론 난적과 난신으로 매도되고, 다른 한편으론 끝

蚩尤作五兵，戈矛戟酉矛夷矛，黃帝誅之涿鹿之野。

71) 不任汨鴻，師何以尚之？僉曰何憂，何不課而行之？鵩龜曳銜，鯀何聽焉？順欲成功，帝何刑焉？(《楚辭·天問》)

72) 精衛銜微木，將以填滄海，刑天舞干戚，猛志固常在。(《讀山海經》)

임없이 숭배되었던 것은 비극영웅에 대한 숭배가 중국의 문학전통이 되었고, 살아있는 민속 문화로서 한족의 심리표층에 침적되어 있음과 동시에 민족의 표층문화로서의 성패사관과 서로 표리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⁷³⁾

2. 개인주의와 무력의 숭배

폭력과 유혈, 전쟁의 광란과 학살로 대표되는 그리스 신화의 전쟁신 아레스의 형상에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공통적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 한마디로 아레스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집단무의식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다.⁷⁴⁾

고대 그리스 문명은 에게 해 문명에서 기원하였다. 그리고 도리아인이 에게 문명을 침공한 이후 많은 에게인들이 그리스 반도로 이주하였다. 그에 따라 그리스 반도는 인구과잉이 초래되어 부득불 해외에서 생존의 공간을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시에 고대 그리스는 씨족제도가 해체된 이후 2백 개가 넘는 독립된 폴리스가 건립되었고, 도시국가마다 모두 자신들의 수호신을 별도로 숭배하였다.⁷⁵⁾ 이로 말미암아 통일된 강력한 중앙정권을 가질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폴리스들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였고, 또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쟁이었다. 특히 문명의 초기, 고대 그리스 사회가 몽매한 시대로부터 문명의 시대로 진입하였을 초기, 정복과 확장은 시대의 조류였다. 때문에 전사계층이 정치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사계층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존공간을 개척하는 선봉대였다. 이 시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영웅을 숭배하였고, 전사의 원형으로서의 아레스 역시 고대 그리스인들의 숭배를 받았다.⁷⁶⁾

고대 그리스는 아주 일찍이 상품경제와 사회분업이 매우 발달하였다. 수공

73) 薛宗正, 앞의 글, p.14.

74) 付飛亮·元紹丞, 앞의 글, p.61.

75) 陳榮富, 《比較宗教學》(世界知識出版社, 1993) p.50.

76) 付飛亮·元紹丞, 앞의 글, pp.61-62.

업과 상업 계층의 대두에 따라서 평등교환을 기초로 하는 사업원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개인주의를 각성하고 또 그것을 성숙시켰다. 때문에 암흑시대 이후의 모든 그리스의 문명 시기는 언제나 개인의 존엄과 가치는 물론 인간의 권리를 긍정하고 인정하였다. 자유정신을 고창하였으며, 개인의 창조적 발전을 고무하였고, 개인이 발휘하는 용맹과 역량, 그리고 지혜를 최고의 인격적 구현으로 생각하였다. 바꾸어 말해서 그들은 개인의 가치와 자아의 실현을 무엇보다도 중시하였고, 인간의 원시적 욕망의 합리성을 긍정하였다.⁷⁷⁾

그리스 신화의 전쟁신 아레스가 가지고 있는 호전과 호색, 그리고 폭력적 특성은 바로 원시초민의 자유의지, 자아의식, 그리고 원시욕망에서 근원한 것으로, 아레스의 의지는 기실 인간의 의지이며, 아레스의 욕망은 바로 인간의 욕망이다. 아레스의 제멋대로의 행동과 방종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신의 원시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잠재적 충동에 대한 은유이며, 개인분위의 문화적 가치 관념의 체현인 것이다.⁷⁸⁾ 이러한 개인분위의 사고는 트로이 전쟁을 두고서 올림포스 신들이 제각기의 취향에 따라서 제각기 편을 달리하고 있고, 특히 그리스 연합군의 주장들이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은 순전히 풍부한 전리품과 노예를 약탈하기 위함이었다⁷⁹⁾는 데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해양을 통한 교역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였다. 교역에는 끊임없는 이익충돌이 발생한다. 이익충돌에서 승리하여 최대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쟁해야 한다. 때문에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 경쟁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였다. 또한 실력만이 격렬한 경쟁에서 공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 우수한 인재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초인적인 용기와 무력이였다. 그리스 신화속의 신들과 영웅들은 모두가 그들이 가진 초인적인 힘과 지혜로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다. 설사 그들의 품행이나 덕성에 큰 결점이 있다고 해도 이는 영웅의 조

77) 徐言行 主編, 《中西文化比較》(北京大學出版社, 2007) p.84.

78) 付飛亮·元紹丞, 앞의 글, p.61.

79) 朱紅梅, <管窺中國神話與希臘神話的文化意蘊>《新西部》2012年35-36期, p.96.

건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주신 제우스는 바람둥이라는 말이 그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여자관계가 난잡하였다. 그는 또 무력으로 자신의 아버지 크로노스를 제거하고 올림포스의 통치자가 되었다. 영웅 헤라클레스의 12관문의 통과 역시 모두 무력을 동원한 것이었다.

거구의 몸으로 전장의 병사들이 전율하는 큰 소리를 내고, 또 시비의 분별없이 전장에 뛰어들어 살육을 일삼는 아레스의 잔악성과 폭력성이 비록 제우스나 헤라클레스의 무력과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그 본질이 모두가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존경쟁에서 기인한 무력에 대한 숭배의식의 반영이라고 하는 점은 동일하다. 그리스 신화가 굳이 이처럼 폭력적이고 유혈이 낭자한 아레스를 미남으로 묘사하여 미의 화신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한 것 역시 무력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숭배의식의 일단이 발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리아스》에서 아레스는 경원의 대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호메로스의 시대부터 이미 그리스 인들은 힘으로만 싸우는 아레스가 영리한 영웅인 헤라클레스나 그리스 신화의 또 다른 전쟁신이자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에게 패배하는 모습을 즐겨 그렸다.”⁸⁰⁾ 이는 고대 그리스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그와 상응하여 변화된 그리스 철학이념이 그가 대표하는 형상과 서로 충돌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기원전 750년 좌우, 그리스 각 폴리스들이 소위 ‘황금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해외무역의 번영, 문명의 왕성한 발전으로 인해서 폭력전쟁과 약탈은 더 이상 재부를 획득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였다. 반대로 사람들은 문명이 폭력전쟁에 의해서 발전하고 전승하지 않으며, 전쟁이 가져온 재부가 생산과 무역을 통해서 이룩한 재부보다 못하고, 야만적인 폭력전쟁은 단지 자신들이 축적한 재부를 궤멸시키고 문명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영향으로 전사계층의 지위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신속하게 하강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전쟁신 아레스의 지위 역시 하강하게 되어 사람들이 아래

80) 피에르 그리말 저 / 최애리 등 번역, 앞의 책, p.245.

스를 경원하기만 하고 결코 숭배하지 않았다. 아레스가 대표하는 폭력, 잔인, 유혈, 그리고 욕망은 인류의 가장 어두운 일면으로, 결국 이성과 인문주의에 기초하였던 그리스 철학의 핵심이념과 서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아레스가 경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⁸¹⁾

V. 결어

전쟁은 자신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적을 강요하는 폭력행위이다. 인류 사회에 욕망과 갈등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을 일삼아 왔다. 전쟁이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부분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전쟁은 한 민족이나 한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신화는 문화적 복합체이다. 때문에 모든 신화에는 그 민족이 걸어 온 역사적 경험과 더불어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체계화된 사유체계가 함축되어 나타난다. 때문에 민족이나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전쟁을 주제로 한 전쟁신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신의 형상에는 바로 그 민족의 가장 원초적인 사유체계가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중국과 그리스의 고대신화에 나타난 대표적인 전쟁신인 치우와 아레스의 형상에 나타난 특징을 비교하고, 나아가 그 문화적 배경을 고찰하는 것은 중국과 그리스는 물론 동서양의 사유체계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서술된 본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신의 외형의 차이를 보면 중국의 전쟁신 치우는 신인이형인데 비해 아레스는 신인동형이다. 동일한 전쟁신이면서 이처럼 외형에서 큰 차이를

81) 付飛亮·元紹丞, 앞의 글, p.61.

보이는 것은 신격의 형성배경과 신의 존재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치우를 비롯한 중국의 신은 토렘숭배에서 발전된 조상숭배를 근간으로 부족의 수장이 조상신으로 승화되었고, 신본문화의 영향 아래서 이들 신령에게 동물이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한 결과로 인수합체의 외형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토렘숭배의 관념도 없었고 동물이 인간이 나라에 빠져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았고, 또 세상에서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형식은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인간의 아름다움을 신의 모습에 집중적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신의 외형이 대부분 인간의 모습을 하게 되었다. 또한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그 형성의 과정이 모두 음유시인을 비롯한 인간에 의해서 전승되고 체계화됨에 따라서 신들의 외형 역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 한 마디로 치우를 비롯한 중국 신화의 신령들의 신인이형은 종교 숭배의 결과이고,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외형인 신인동형은 인간지상의 관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전쟁신이라는 신격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중국의 전쟁신 치우는 인간의 신격화의 결과인 반면에 그리스의 전쟁신 아레스는 신의 인격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치우는 비록 전쟁신이지만 그의 원형(原形)은 인간이다. 다만 한 부족의 수령으로, 금속병기를 제작할 수 있는 선진기술을 보유함과 동시에 그의 최대의 적이었던 황제마저도 쉽게 대적할 수 없었던 용맹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보통 인간들과 다른 점이다. 인간이지만 생전의 공적이나 헌신에 따라 사후에 신으로 승화되어 숭배되고, 또 일단 신으로 등극하게 되면 지고무상의 존엄성을 부여받는 것은 중국신화에 등장하는 신령들의 일반적 사례이다. 이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의 신격화이다. 치우 역시 이러한 인간의 신격화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그리스의 전쟁신 아레스는 주신 제우스와 헤라의 소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신격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아레스는 자신의 부모로부터도 인정받

지 못하였고, 전투력에 있어서도 전쟁신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정도로 변변치 못하였다. 또한 아프로디테와 불륜에 빠져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멧돼지로 변하여 정적인 아도니스를 받아 죽이는 등 어찌 보면 인간보다 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결점 투성이 신이다. 이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동물적 폭력성이 전쟁신 아레스를 통해서 반영된 것으로, 전쟁신 아레스 역시 신의 인격화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가진 일반적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전쟁신 형상의 심미적 특징에 있어서는 치우가 비극성의 전형인 반면에 아레스 호전성의 전형이다.

치우는 신국의 절대 통치자인 황제에게 대항하였다가 목이 잘린 실패한 영웅이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앙을 무릅쓰는 반항과 불굴의 항쟁정신이 비극미의 한 요소라는 관점에서 치우의 심미적 형상은 비극성을 함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아레스는 전쟁의 피비린내를 맡으면 희열을 느끼며 피아를 가리지 않고 전쟁에 뛰어든다. 또한 폭력과 공포의 상징인 수종들을 언제나 동반하고, 그의 아들들 역시 하나같이 극악하기 짝이 없다. 때문에 아레스의 심미적 형상은 오로지 유희와 폭력으로 점철된 호전성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중국과 그리스의 전쟁신의 성격 형성의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치우의 이율배반적인 형상은 성패사관과 비극영웅에 대한 숭배가 혼합된 결과이고, 아레스의 호전적 형상은 바로 개인주의와 무력숭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치우와 황제와의 전쟁은 단순한 부족간의 전쟁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정의와 질서의 화신으로 숭상되고, 치우는 난신 또는 난적 등으로 주변화되었던 것은 중국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인 성공하면 왕자가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성패사관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전쟁에 패배하여 목이 잘린 실패한 영웅인 치우가 지속적으로 전쟁신으로 숭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비극영웅의 숭배라고 하는 중국 특유의 문학적 정서 때문이다.

이에 비해 아레스가 가진 호전과 호색, 그리고 폭력적 특성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진 개인적 자유의지와 원시적 욕망에서 근원한 것으로, 이는 바로 인간의 의지이고 인간의 욕망이다. 일찍이 바다를 배경으로 한 교역에서 발생하는 끊임없는 이익충돌로 인하여 경쟁과 실력만이 생존의 선결조건이 되었던 고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력을 숭배하는 의식을 가지게 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무력 숭배의식은 제우스를 비롯한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벌이는 상호 경쟁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때문에 아레스의 호전성과 폭력성은 바로 고대 그리스 문화의 개인주의와 무력숭배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孫子》

《述異記》

《山海經》

《尚書》

《周禮》

《史記》

《大戴禮》

《太平御覽》

《管子》

《楚辭》

《韓非子》

아리스토텔레스 저 / 천병희 역,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삼성출판사, 1983.

호메로스 저 / 이상훈 역, 《호메로스》, 동서문화사, 1987.

김선자, 《중국변형신화의 세계》, 범우사, 2002.

헤시오도스 저 / 김원일 옮김, 《신통기》, 민음사, 2003.

윤일권 · 김원익, 《그리스 로마신화와 서양문화》, 문예출판사, 2004.

이윤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신화 4》, 웅진지식하우스, 2007.

- 피에르 그리말 지음 / 최애리 번역, 《그리스 로마 신화사전》, 열린책들, 2009.
- 선정규, 《여와의 오색돌 - 중국문화의 신화적 원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 袁珂, 《古神話選釋》, 臺北長安出版社, 1982.
- 李澤厚, 《美的歷程》, 三聯書店, 2010.
- 徐言行, 《中西文化比較》, 北京大學出版社, 2007.
- 陳榮富, 《比較宗教學》, 世界知識出版社, 1993.
- 李向明, <時代的剪影, 理想的昇華 - 試論上古神話的悲劇美>《內蒙古民族師院學報(哲社版)》1999年第3期, 總第 79期.
- 薛宗正, <失敗英雄崇拜與成敗史觀-論我國傳統文化心態的二律背反>《新疆社會經濟》2000年3期
- 李文斌, <悲劇和悲劇美>《忻州師範學院學報》2006年01期
- 顏建真, <論中國古代神話中的失敗者被妖魔化的表現及其原因-以蚩尤, 共工, 刑天, 鯀為例>《中國海洋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0年第3期
- 賀菊玲, <中西神話中神的形象塑造及民族文化精神的差異>《社會科學家: SOCIAL SCIENTIST》2011年11月(第11期, 總第175期)
- 付飛亮·元紹丞, <中西戰神: 關羽和阿瑞斯>《贛南師範學院學報》2012年02期
- 朱紅梅, <管窺中國神話與希臘神話的文化意蘊>《新西部》2012年35-36期
- 선정규, <치우 형상 변화의 사회문화적 원인 고찰>《中國學論叢》第44輯, 2014.5

< Abstract >

Mythology is a complex of cultures. Therefore it reflects the historical experience that people went through and the structured system of contemplation built over time. The figure of a war deity, the primary character in the mythology associated war which might have terminated or sustained a nation, represents the most primitive contemplation system of the race. The purpose of the current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in how eastern and western people have developed their thoughts, by investigating two war deities in Chinese myth and Greek myth, Chiyou and Ares. The research also looks into the embedded culture in those two mythological characters. Such

investigation leads to the conclusions as following.

First significant difference is found from the appearance of two gods. Chiyou has the look of hybrid, of human and animal, while Ares has the look of complete human. The dissimilarity in the appearance results from the different formation and concept of divine characters.

Two characters have different backgrounds in becoming divine characters as well. The beginning of Chiyou was a human who was deified later. Ares, on the other hand, originated from a god, and gained the human characters later.

In terms of aesthetics, stories of two characters have different types of beauty. The story of Chiyou is typical tragedy, while Ares represents typical hostility.

Paradoxical figure of Chiyou is the consequence of worshiping tragic hero and deifying the winner, while the hostility of Ares results from individualism and worshiping military force.

Key words: 치우, 아레스, 신인이형, 신인동형, 비극성, 호전성, 성패사관, 비극영웅숭배, 개인주의, 무력숭배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9. 30.	2014. 10. 20.	2014. 11. 4.	2014. 11. 12.	2014. 11. 30.